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00 팩스 02-3702-2121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12/31

한국인이 보는 2014년 (세계 65개국 비교 조사)

1947년 조지 갤럽 박사가 설립한 갤럽국제조사기구(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1977년부터 전 세계 60여 개 회원사가 매년 말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노동,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과 내년 전망을 알아보는 'End of Year Poll'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 'End of Year Poll'에는 한국을 포함해 65개국 약 6만 7천 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35년간 동일한 질문으로 다음 해 우리나라 경제와 가구 살림살이, 국내 실업자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한국인과 세계인의 2014년 전망을 비교해 보십시오.

조사 개요 - 한국

1. 조사기간: 2013년 11월 1~18일(18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
5.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6.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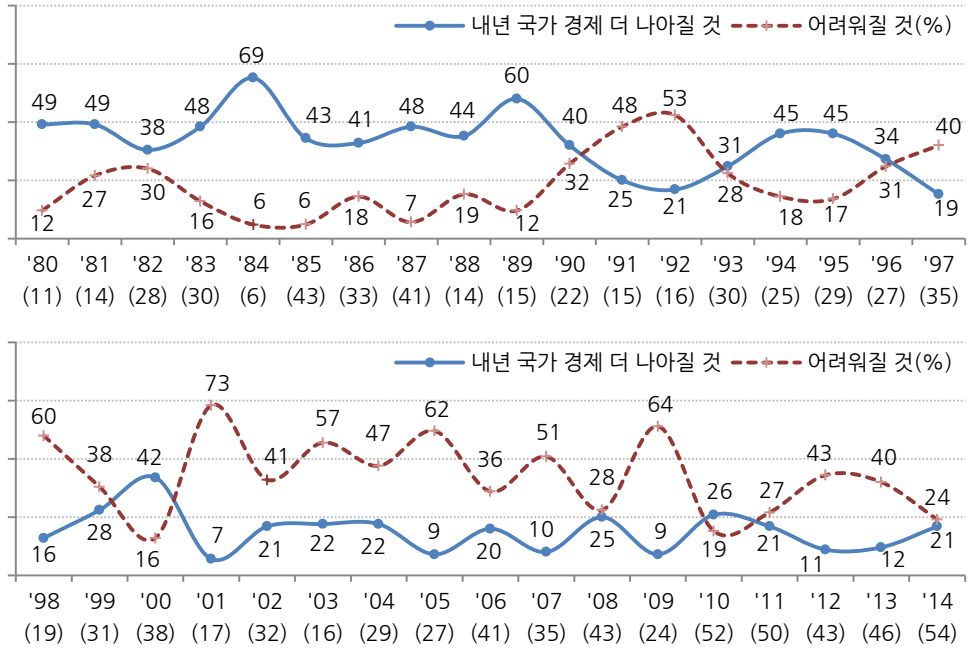
- 2014년 한국 경제: '나아질 것' 21%, '어려워질 것' 24%, 낙관-비관 격차 크게 줄어
- 2014년 세계 경제: '나아질 것' 32%, '어려워질 것' 30%
  -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다수는 비관 전망 우세
- 가구 살림살이 전망은 2012년 대비 소폭 호전
- 국내 실업자 전망은 '감소할 것' 16%, '증가할 것' 41%지만 최근 2년간 비관론 줄어

2014 년 한국 경제: '나아질 것' 21%, '어려워질 것' 24%, 낙관-비관 격차 크게 줄어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24%는 '어려워질 것', 21%는 '나아질 것', 54%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4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 지난 해 대비 낙관론은 9%포인트 증가, 비관론은 16%포인트 감소해 낙관-비관 격차가 3년 만에 크게 줄었다.

지난 35년간 한국인의 국가 경제 전망 추이를 보면, 한국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1979년 이후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극적으로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낙관-비관 격차가 줄고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이 내년 국가 경제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망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인의 1980~2014년 국가 경제 전망 추이



질문)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아질 것/ 비슷할 것/ 어려워질 것

주) 괄호 안은 '비슷할 것' 응답 비율. 각 연도별 전망은 전년 말 조사 결과.

2014 년 세계 경제: '나아질 것' 32%, '어려워질 것' 30%
-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다수는 비관 전망 우세

전 세계 65개국의 2014년 경제 전망 평균은 '나아질 것' 32%, '어려워질 것' 30%, '비슷할 것' 33%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비슷했다. 2013년 전망 세계 평균('나아질 것' 35%, '어려워질 것' 28%, '비슷할 것' 29%)과 비교하면 부정적 시각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최근 3년간 국가 경제 전망 – 세계/대륙별 평균 (단위: %)

		더 나아질 것	어려워질 것	비슷할 것
2012년 세계 전망		30	34	27
2013년 세계 전망		35	28	29
2014년 세계 전망		**32**	**30**	**33**
대륙별	미대륙	30	33	32
	서유럽	11	42	44
	동유럽	16	44	34
	아시아	37	26	32
	중동/북아프리카	37	34	22
	아프리카	36	37	24

▶ 2014년 국가 경제 전망 – 낙관 Top 10

순위	국가명	낙관	비관
1위	피지	62	14
2위	조지아	60	13
3위	사우디아라비아	55	21
4위	알제리	50	23
5위	파푸아뉴기니	50	16
6위	브라질	49	21
7위	중국	49	14
8위	모로코	48	22
9위	남수단	47	18
10위	인도	41	28
⋮	⋮	⋮	⋮
35위	한국	21	24
⋮	⋮	⋮	⋮

▶ 비관 Top 10 (단위: %)

순위	국가명	낙관	비관
1위	그리스	5	70
2위	포르투갈	8	69
3위	프랑스	6	59
4위	세르비아	13	55
5위	러시아	11	54
6위	튜니지아	32	50
7위	보스니아	10	50
8위	스페인	10	49
9위	오스트리아	6	46
10위	케냐	41	46
⋮	⋮	⋮	⋮
46위	한국	21	24
⋮	⋮	⋮	⋮

대륙별로 보면, 세계 평균에 비해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낙관론이 높은 편이었고, 서유럽과 동유럽은 대체로 비관론이 높았다.

나라별로 보면, 조지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낙관론이 55% 이상, 알제리, 파푸아뉴기니, 브라질, 중국, 모로코, 남수단 등도 낙관론이 50%에 육박했다. 반면, 비관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70%)와 포르투갈(69%)이었으며 뒤를 이어 프랑스, 세르비아, 러시아, 튜니지아, 보스니아, 스페인 등에서도 비관론이 50% 내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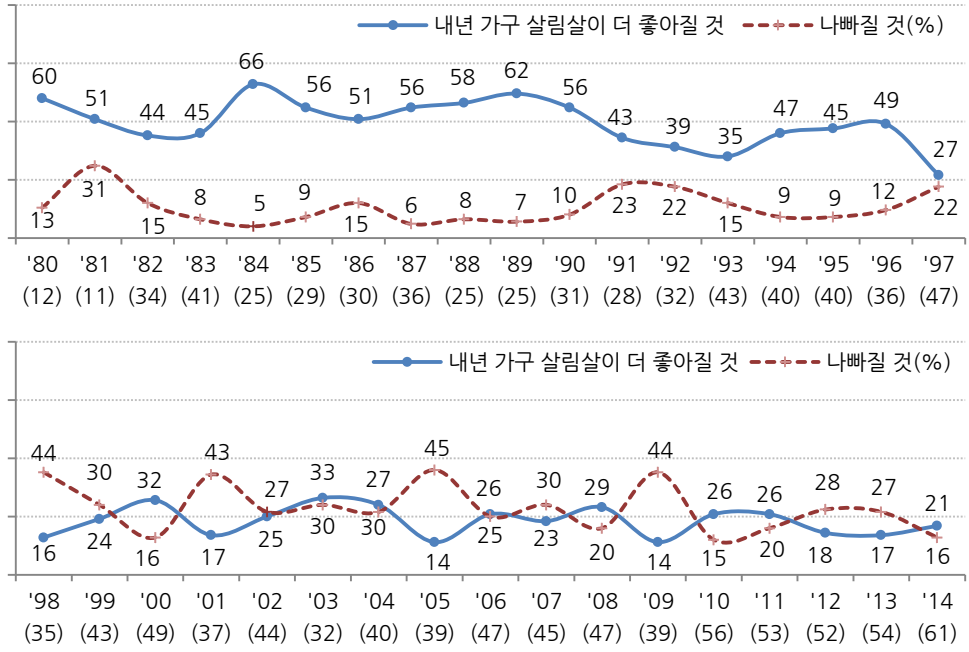
가구 살림살이 전망은 2012 년 대비 소폭 호전

가구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21%는 '좋아질 것', 16%는 '나빠질 것', 61%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인의 가구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은 2012년에 비해 비관론이 11%포인트 줄고, 낙관론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관망층이 각각 4%포인트, 7%포인트 늘어 소폭 호전됐다.

지난 35년간 한국인의 가구 살림살이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낙관론이 50%를 상회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이후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상회하는 등 이전처럼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는 없었다.

국가 경제 전망과 마찬가지로 가구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2010년대 들어 낙관-비관 격차는 줄고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일로에 있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 호황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 한국인의 1980~2014년 가구 살림살이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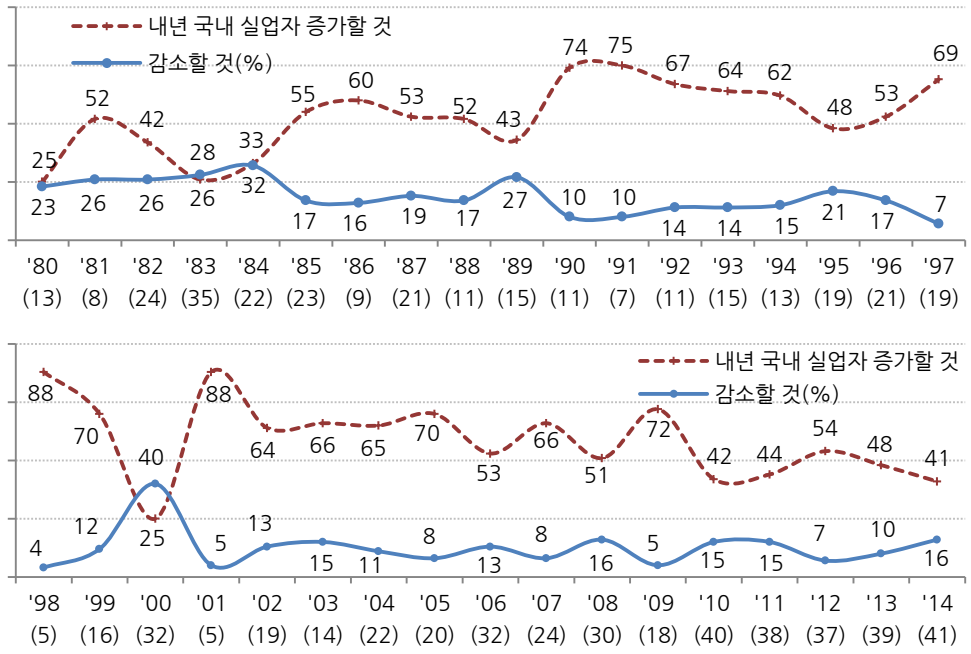
질문) 귀댁의 살림살이가 2014 년인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좋아질 것/ 비슷할 것/ 나빠질 것

주) 괄호 안은 '비슷할 것' 응답 비율. 각 연도별 전망은 전년 말 조사 결과.

국내 실업자 전망은 '증가할 것' 41%, '감소할 것' 16%지만 최근 2 년간 비관론 줄어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올해보다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41%는 '증가할 것', 16%는 '감소할 것', 41%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에도 국내 실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지만, 이런 비관론은 최근 2년간 감소했다.

▶ 한국인의 1980~2014년 실업자 전망 추이



질문)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올해보다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많이 증가/약간 증가/비슷/약간 감소/많이 감소

주) 괄호 안은 '비슷할 것' 응답 비율. 각 연도별 전망은 전년 말 조사 결과.

지난 35년간 한국인의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실업자 전망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2000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한데 이는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1년 비관론이 IMF 직후와 동일한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전망 낙관-비관이 엇비슷했던 것은 1980년, 1983년, 1984년 세 해뿐이었고, 나머지 31년은 모두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렇게 국가 경제와 가구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조차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상황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2000년대에 비해서는 낙관-비관 격차가 줄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4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삶의 질 우선, 노후 생활 대비,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어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